

## 일본의 TPP 교섭동향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 ■ TPP 개요 및 목적

□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FTA

※ 협상 참여국 확대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06)→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10)→ 멕시코, 캐나다('11 협상참여)→ 일본('13 협상참여)

○ TPP는 모든 관세의 완전 철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며, 기존 협상참여국 전체의 동의(Consensus)로 신규참여국 승인

○ 외교면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일·중 FTA, ASEAN+3 추진 등의 대항수단 성격

- 일본도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ASEAN+6를 추진하였으나 교섭개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마·일 주도의 최대규모 경제권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 수단 확보

○ TPP는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APEC)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목표로하는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위협요소에 대응하고, WTO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결과적으로 중국 및 신흥국을 편입

- 특히 일본은 인구고령화, 국내시장 축소 등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 TPP 추진현황

### □ 일본의 TPP 주요 동향(연도별)

- (2010년) APEC회담에서 교섭참가 착수를 정식 발표(11.13)
- (2011년) 일본 경단련측에서 TPP교섭 조기참가를 요청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은 1,100만명이 넘는 TPP반대서명을 정부에 제출(10.11) 했으며, 경단련과 JA전중 회담 결렬(11.9)
  - ‘10.10월부터 ’11.9월말까지 1년간, 42개 지자체에서 TPP참가에 대해 반대론, 신중론 등의 의견서가 채택
  - 민주당의 경제연계 프로젝트 팀은 정부에 TPP참가에 신중할 것을 제언, 당시 수상(노다)은 호놀룰루 APEC수뇌회담에서 TPP교섭참가를 위해 관계국 협의를 표명
- (2013년) 아베수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TPP는 성역없는 관세철폐’가 전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TPP참가를 표명(3.15)
  - 일본 정부 TPP 정부대책본부 설치(3.22)
- (2014년) 실질적으로 TPP를 주도하는 미·일간 협상이 중요품목에 대한 이견차이로 지연되어 왔으나, 4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진했던 TPP관련 교섭 가속화하기로 합의
  - 일본은 농산물 관련 중점 5품목(쌀, 밀, 소고기·돈육, 우유 및 유제품, 감미자원작물), 미국 자동차 관련 입장차 확인
- (2015년) 농협중앙회가 정부의 농협개혁안을 수용함(2.9), 일본 국내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미국무역통상부와 TPP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
  - 미일 협상의 최대의 초점 중 하나인 주식용 쌀에 대해 미국은 관세 제로의 수입물량을 연간 17만5천톤 증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측은 5만톤 이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제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철폐기간 등을 놓고 양국의 견해차가 커 합의목표가 지연되고 있음
  -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필리핀, 대만 등의 국가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TPP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 TPP 교섭의 주요 쟁점

### <미·일 교섭>

| 항 목                                              | 일본 입장                                              | 미국 입장                                          |
|--------------------------------------------------|----------------------------------------------------|------------------------------------------------|
| 소고기·돼지고기<br>*관세<br>소고기 341엔/1kg<br>돼지고기 482엔/1kg | 강력한 세이프가드 도입 조건으로 소고기 10%이하, 돈육 50엔이하로의 관세 인하 검토   | 관세철폐를 고집하는 돈육업계 등의 압력을 배경으로 큰폭의 자유화 요구         |
| 유제품                                              | 저율 또는 무관세 수입할당 활용을 축으로 영향이 적은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도 검토      | 치즈, 버터, 탈지분유, 유청의 관세철폐 또는 큰폭의 인하요구             |
| 쌀·밀<br>쌀 관세 341엔/1kg                             | MMA, 국가무역등의 현행제도 범위내에서 운영개선 등 검토 (쌀 수입물량 최대 연 5만톤) | 관세유지 용인<br>주식용 쌀의 수출확대 겨냥 (쌀 수입물량 최대 연 17.5만톤) |
| 사탕 등                                             | 미일 모두 관세유지                                         | 미일 모두 관세유지                                     |
| 자동차부품                                            | 관세의 즉각 철폐                                          |                                                |

### <미국·신흥국 교섭>

| 항 목           | 미국 입장                          | 신흥국 입장                      |
|---------------|--------------------------------|-----------------------------|
| 지적재산권 보호      | 신약 데이터의 보호기간을 길게(바이오 의약품은 12년) | 후발 의약품 보급을 위해 보호기간은 3~5년 정도 |
| 국유기업의<br>보호정책 | 민간기업과 동일한 취급                   | 국유기업이 국내생산을 지탱하고 있어 보호정책 유지 |

## ■ 시사점

TPP협상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TPP에 참여하진 않고 있으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참가하게 되면 협상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농업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을 면밀히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에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